분석에서 직관으로… 대승불교 번영의 역사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2. 분석과 직관 ㊦

스콜라적 영위에 몰두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붓다의 가르침이 '분별의 가르침' 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연기의 법칙에 기반을 둔 가르침으로서는 필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별의 가르침' 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조용하게 인류의 정신사(精神史)를 뒤돌아 보면 인류가 분석적 사유(思惟)를 활발하게 펼치기 시작한 것은 결코, 머나먼 옛일은 아니다. 아마 이점에 관해서 그 선구적(先驅的)인 역할을 한 것은 서쪽에서는 희랍민족 동쪽에서는 인도 · 아아리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붓다 그 사람은 인도 · 아아리얀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초기에 그러면서도 가장 활발하게 분석적 사유(思惟)를 시도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별의 가르침〉은 아마 퍽 새로웠으며 또 매력있는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오늘날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혹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반면 이러한 분석적인 사유(思惟)에 따라 간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거기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지성이 우수한 청년들에 한정되었으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 교단에 몸을 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석적 사유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많지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샤알리푸트라(舍利佛)이다.

그는 자주 그 스승을 대신하여 새로이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해설하였다. 그것이 몇 개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해설은 언제나 훌륭한 분석적 사유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퍽 희귀한 일일 것이다. 많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붓다가 시도한 분석적 사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붓다는 인간을 그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다섯 가지의 부분(오온)을 들었다.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들며 기억하였다.

붓다는 또 인식의 성립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면서 여섯 개의 감관(感官)과 그 대상(六處)을 들었다.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또 붓다는 현실의 인간존재의 고(苦)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추구하여 12개의 생기(生起)의 조건(十二연기)을 계열적으로 들었다. 이것을 그들은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기억과 신행(信行) 속에 간직하였다. 그러나 다만 그것 뿐이었다.

불교의 용어에 '명목(名目)', '법수(法數)' 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사상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술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명목(불교 용어의 명칭 혹은 數目)이나 법수(불교 용어를 수효로 정리한 것)를 배운다는 것은 물론 필요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삼계(三界) 사제(四諦) 오온(五蘊) 육처(六處) 등등 다만 숫자만을 세우며 오직 술어를 듣고 외우기만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위 대승의 사람들이 전래(傳來)의 불교에 고집하는 이른바 소승의 사람들이 수도(修道)에 불만을 품으며 새로운 불교의 길을 주장하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다만 명목 법수의 스콜라적 영위(營爲)에만 몰두하고 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미 근본불교의 성원(成員)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분석과 직관의 대립

생각해보면 이른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던 대립논쟁은 이것을 방법론(方法論)의 입장에서 보면 분석에 중점을 두는냐 직관(直觀)을 중시하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였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 말한다면 분별과 무분별(無分別)과의 대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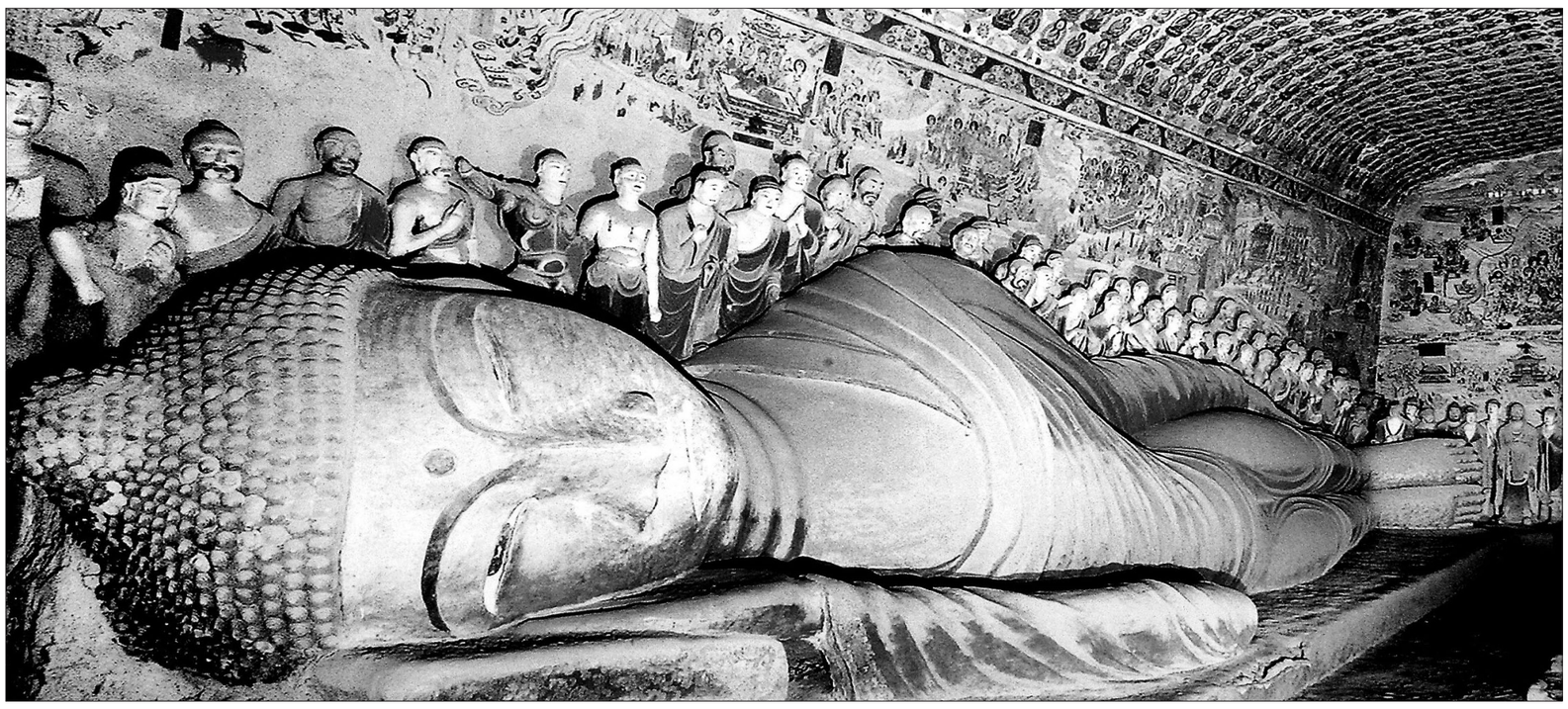
예를 들면 같은 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연기의 법칙으로서 잡는 근본불교의 방법에서는 분석적 방법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파악의 방법을 대승의 사람들은 석지(析智)라고 하여 배척한다. 거기에 파악되는 것은 석공(析空)이라고 하며 이것에 무거운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을 물리치면서 대승의 사람들은 체지(體智)로서 공(空)으로서의 법을 제법(諸法)(존재)의 당체(當體)에 맞도록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하여 파악된 것을 체공(體空)이라고 부르며 이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석지(析智)란 분별경(分別境)에 작용하는 분석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체지(體智)란 무분별경(無分別境)에서 이루어지는 직관(直觀)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는 그 교도(敎徒)가 차츰 차츰 '분별의 가르침' 을 떠나서 무분별경(無分別境)에서 직관에 몸을 맡기는데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번영의 역사는 방법론적으로 보면 분별에서 무분별로 가는 역사이며 분석에서 직관으로 흐르는 역사이다. 그러나 분석과 직관은 원래 서로 보합(補合)해야 할 인간의 지혜의 두 가지의 작용이다. 직관이 없는 분석은 결국 구극(究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분석을 멸시하는 직관은 도저히 올바르게 이법(理法)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주의깊게 보면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근본 불교도 결코 직관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직관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붓다란 분은 관찰과 분석과 직관을 참으로 자유롭게 구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관찰 분석의 놀라움에 탄복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으며 명목법수(名目法數)를 헤아리는 스콜라적인 것에만 몰두(沒頭)하였을 때 대승불교에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必然性)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국 돈황 막고굴 제148굴. 부처님의 열반상이 안치돼 있고 주위에 제자와 아라한들이 서 있다. 부처님 열반 이후 불교는 분별에서 무분별로 분석에서 직관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예수와 부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두 분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르침 또한 성경과 불경에서 사랑과 자비, 나눔과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일깨우고 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절대적 희생과 사랑 실천은 우선 접어두기로 하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억만 가지 감정이입(離入)으로 인해 희(喜), 노(怒), 애(哀), 락(樂)을 느끼며 살아간다. 때로는 흔들리며, 헐떡이며, 타는 목마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삶을 지탱하기도 한다. 더러는 설렘 속에서 만족해하고, 느긋한 포만감 속에서 여유와 당당함을 누리고, 살아 있음에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은 낮과 밤이 반반이다.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있는가 하면 빛이 찾아든다. 빛이 희망이요, 어둠은 절망이며, 밝음은 행복이요, 그늘은 불행인 것처럼 착각 아닌 착각을 불러들이며 살고 있지만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어둠이 빛이요. 빛이 어둠이다. 영원한 행복은 없지만. 영원한 불행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철저하게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된다. 삶에 있어 모든 선택은 철저히 에고이스트(Egoist)적 자기중심으로 좁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계산과 이익에 밝은 동물이며 행복지킴이의 표본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쳐 있다. 위로 받고 싶고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 그 한 부분이 종교라는 울타리이고, 신앙이라는 정신적 안식처였다. 목사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부를 만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스님을 만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만남이 만남답지 못해 후회로, 흔들림으로 얼룩진다면 사람들은 마지막 보류마저 잃게 된다.

행복을 위해 당신과 나는 지금 신호등의 무슨 불빛 아래 서 있는가.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행복지킴이가 되어보자. 어차피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닌 하나인데.

문은 항시 열려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박혀 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하면 얻을 것이다." 이 성경(Bible)의 구절은 기독교인에게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얻는다. 신바람 나는, 들뜨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종교를 필요로 하거나 신앙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람은, 만족의 행복 지수가 100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어 있는 듯이 허전하고 답답할 만큼 어지럽다. 둘레에 모이는 것은 어둠 뿐,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다.

싱글(Single)로 있을 땐 짝이 그립고, 둘이 있을 때는 하나 시절의 자유가 그립다. 세상은 온통 흔들리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게 없고, 공짜로 생기는 게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는 세상이요, 서둘다보면 건강마저 잃기 쉽다. 오고가는 현찰 속에 우정도 사랑도 오고가는 세상이고 보면, 믿음이란 오아시스의 신기루 같은 존재일지도 모를 일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을 지키는 일
두드리지 말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마른 모래알을 쥐고 있는 주먹처럼, 솔솔 빠져 나가는 것은 세월이요, 건강이다. 두 눈을 멀거나 뜨고도 가위 눌림에서 허덕일 수 있고, 방안에 앉아서도 심한 멀미로 구토 증세를 느낄 수 있다.

타는 목마름과 외로움은 짝이 있어도 깊어지기 마련이요, 가슴 속 구멍 뚫린 허전함은 불멸의 밤을 불러들인다.

대화 나눌 상대 찾기 어렵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싸줄 손길이 나날이 그리워지는 현실이다. 주머니에 지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바람만 불어도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픈 우리네 일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옮겨보겠다.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시 열려 있다. 두드리려는 그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구하지마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요,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은 번민에 찬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